

그리젤다의 몸과 노동: 초서의 「학자의 이야기」*

윤민우 (연세대학교)

초서의 「학자의 이야기」는 가혹할 만큼 부당하게 아내의 순종을 시험하는 남편과 이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부인의 이야기이다. 월터라는 이름의 후작(marquis)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농민계층의 딸인 그리젤다를 아내로 삼는다. 그는 아내의 순종을 시험해 보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그리젤다가 낳은 어린 딸과 그 후에 태어난 남자아이를 차례로 빼앗아 죽이는 시늉을 취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젤다의 후작부인 자리를 아예 박탈하여 집으로 돌려보낸 후, 다시 불러 새로운 부인—그녀는 바로 그들의 어린 딸인데—을 맞이하기 위한 결혼식 준비를 부탁한다. 그리젤다는 완벽한 순종으로 월터의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여, 종국에는 영주 부인으로 다시 복위되고, 그녀의 아들은 차후의 영주로 즉위하는 행복한 결말로 이어진다. 그런데, 아내의 순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월터는 왜 이러한 불필요한 듯 보이는 부당한 시험을 되풀이하

* 본 논문은 저자의 2006년 연세대 연구년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여 감행하여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가혹한 시험을 아무런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그리젤다의 순종은 무한정 칭찬 받아 마땅한가? 월터의 시험뿐만 아니라 그리젤다의 순종과 인내도 합리성의 수준을 넘어 있어, 양자는 모두 가히 인간의 경계를 넘는 “괴물 월터와 그의 괴물같은 아내”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다 (Sledd 163). 그들이 괴물이 아니라면, 월터의 시험과 그리젤다의 순종은 어떤 각도에서 조명되어야 하는가? 『학자의 이야기』의 주된 논쟁거리인 바로 이 점을 본 연구는 새로운 각도에서 고찰하려고 한다.

그리젤다의 순종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그리하여 애처롭게 보이는 것을 너머, 무언가 긴장을 내포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내레이터가 거듭 “불필요하다”라고 코멘트하는 월터의 아내 시험은 어떤 심리기제에서 유래하는가? 그리고 순종과 인내의 화신으로서의 그리젤다는 아무런 본래적 자기의 요소가 없이 오로지 남편의 의지를 따르는 것뿐인가? 그리젤다의 순종과 인내 이면에 가부장제 하에서의 여성의 억눌린 고통과 억압이 있다거나, 좀더 적극적으로 강력한 의지가 도사리고 있다는 관측은 근래의 페미니스트 비평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월터의 시험은 신학상의 추상적 주제로 환원되기 어려운 정치적 권력과 젠더의 역관관계에서 규정되어지는 자기인식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도 강세를 띠는 경향이다. 어떤 점에서 보면, 자신에게 저항할 수 있는 동등한 지위의 인물과 자기계발과 향상의 ‘노동’의 결핍 등으로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수단을 결여하는 월터로서는 수동적이지만 강력한 의지를 지닌 아내 앞에서—예컨대, 한센이 “침묵의 힘”이라 불렀던 것과 같은(Hansen 188-207)—자기 확인의 작업을 거듭 시도해야 할 심리적 이유가 생겼다고 일단 말해 둘 수 있다.

이 논문은 첫째, 그리젤다의 옷과 몸의 의미에 주목한다. 그녀는 아버지 집과 월터의 궁정에서 각각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다. 그런데, 그녀의 알몸은 옷에 의해 재현되는 남성들의 의미화작용을 기다리는 수동적 대상일 뿐인가? 그리젤다의 자기인식에 관련하여, ‘옷’에 치중되는 대체적인 해석경향에서 그리젤다의 ‘알몸’의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구체해 낼 수 있다. 둘째, 월터와 그리젤다의 관계는 헤겔이 인간의 자기인식의 측면에서 토론하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닮았

다. 그리젤다의 몸과 연관하여, 그녀가 시종일관 충실한 노동의 측면이 ‘노예’로서의 그녀의 자기인식을 복돋운다. 그리하여 이 변증법적 관계에서 자기인식의 주인은 오히려 그리젤다라 할 수 있다.

1. 옷과 몸

윌터는 그리젤다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결정한 후, 먼저 그녀의 아버지 자니쿨라(Janicula)의 승낙을 받고서야, 그리젤다에게 절대적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결혼승낙을 구한다. 그리젤다의 자기인식에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그녀가 남성의 의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은 「이야기」에서 의복의 메타포로써 가장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다. 즉, 그녀는 아버지 집에서는 남루한 노동자 옷을 입고, 윌터의 궁정에서는 영주 아내로서의 귀족 옷으로 갈아입는다. 윌터는 그리젤다를 궁정에 불러들일 때, ‘거기에서의 옷을 다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372-78행)라고 말한다.¹⁾ 그리젤다의 타고난 자연적 덕성을 발견(*inventio*)한 윌터는 농부의 옷을 벗기고 새롭게 자신의 옷을 그녀의 몸에 입히고(*glossing*), 그리하여 완전히 달라진 그리젤다의 모습을 궁정의 공적 무대에 전시함으로써 그리젤다에 대한 자신의 읽기와 주석붙이기의 탁월함을 가시적으로 만든다고 할 수 있다(Wallace 194). 옷은 어떤 의미에서 텍스트이다. 한편, 옷의 소유권에 대한 윌터의 절대적 권위에 호응하여, 그리젤다는 궁정에서 순종을 시험당할 때 다음처럼 말한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시니, 종을 실대로
당신의 물건을 처리하세요, 저의 조언을 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당신에게 올 때, 모든 옷을
집에 두고 왔듯이,” 그녀는 말했다.

1) 초서의 인용은 Larry D. Benson, ed., *The Riverside Chaucer*, thi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7)에서 취하였으며, 한글번역은 필자의 것임.

“꼭 그렇게 의지와 모든 자유를 남겨 두고
당신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간청컨대,
즐거울 대로 하소서. 저는 당신의 욕구를 따를 겁니다.

“Ye been oure lord; dooth with youre owene thyng
Right as yow list; axeth no reed at me.
For as I lefte at hoom al my clothyng,
Whan I first cam to yow, right so,” quod she,
“Lefte I my wyl and al my libertee,
And took youre clothyng; wherefore I yow preye,
Dooth youre plesaunce; I wol youre lust obeye. (652-58)

이 구절에서 암시되는 바, 옷은 그리젤다의 신분변화를 이룩한 그저 주어진 은총이기도 하며, 동시에 이 옷은 은총을 베푸는 이의 절대적 ‘의지’와 ‘자유’에 관련되어 있다.²⁾ 옷은 읽기와 주석 붙이기에 상응하는 은총과 권위를 뜻하는 것이다. 이후에, 윌터의 변덕으로 인하여, 그리젤다는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가는데, 물론 다시 너마 옷을 입어야 하며, 윌터가 최종적으로 그녀를 다시 불러들일 때

2) 스타인메츠(Steinmetz)는 윌터가 부여하는 이 옷이 신의 습성적 은총에 비견될 수 있다고 말한다(49). 이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의하는 바, 정당성 부여의 준비단계로서, 신이 인간을 움직여 신의 뜻을 알게 하고 이를 원하게 하여 행동하게 하는, 신이 보조하는 행위적 은총(actual grace)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신이 기질적으로 혹은 습성적으로 베푸는 정당화의 은총(habitual grace)을 말한다. 이는, 실제로는 은총을 받을 자격이 모자라지만, 신의 입장에서 신성케 해주는, 죄를 씻게 해주는 은총으로서, 주입된 은총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유명론 신학의 입장에서는 신은 자신의 절대적 의지에 의해서만 구원을 약속하므로, 모든 자발적인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정당화의 습성적 은총은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Burke 참조). 그리젤다로서는 특별한 선행을 한 바 없이 그 덕성적 성품만으로 윌터의 은총을 입었다. 그럼에도 그리젤다의 편에서 윌터의 의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다는 태도는 유명론적인 믿음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성(reason)과 의지(will)를 동시에 중요시했던 반면, 『학자의 이야기』에는 ‘reason’ 대신에, ‘will’에 해당하는 낱말(entente, plesaunce, will, lust 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유명론’ 신학의 분위기가 팽배함을 알리는 한 예증이다.

에는 영주 부인으로서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요컨대, 옷과 처소의 바뀜은 외부조건에 종속되는 그리젤다의 현존재를 재현하는 메타포이다.

이 현상은 “그녀가 ‘translate’ 된다”는 문장에 집약되어 있다. 월터의 궁정에서 화려한 옷으로 바뀌 입었을 때 내레이터는 다음처럼 말한다.

그녀의 치장에 관해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나?
그녀가 이처럼 화려하게 변모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다움 때문에 거의 알아보지 못하였다.

Of hire array what sholde I make a tale?
Unnethe the peple hir knew for hire fairnesse
Whan she translated was in swich richesse. (383-85)

「학자의 이야기」에서 “translatio”라는 낱말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남성 번역자와 여성 텍스트이다(Dinshaw 133-37). 물론 초서 자신이 북카치오의 이탈리아어 원전, 알레고리적 의미부여의 페트라르카 라틴 원전, 그리고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프랑스 산문 버전의 그리젤다 이야기들을 ‘번역’하고 있기도 하다. 초서의 텍스트 내부에서도, 아버지 자니콜라와 남편 월터말고도 내레이터인 학자가 붙이는 코멘트, 그리고 작가 초서가 붙인 발문(Chaucer’s envoy)으로 하여,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 해석이 그리젤다를 에워싸고 있어 페트라르카의 독백적 알레고리는 대부분 폐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월터가 아버지의 옷 아래 가려진 그리젤다의 덕성을 파악하고, 또다시 그 자신의 옷으로 갈아 입혔듯이, 남성의 번역은 기존의 옷(번역) 아래의 잠재적 의미를 파악하는 발견임과 동시에 이를 자신의 옷(주석)으로 재치장하는 행위를 뜻한다(Dinshaw 141). 남성에게 독점된 응시와 재해석, 기존번역과 새로운 주석이 침묵의 텍스트라 할 수 있는 그리젤다를 감싸고 있다.

둘째, “translatio”는 장소의 이동을 의미한다. ‘trans-latio’에서 ‘latio’는 ‘fero’(옮기다, 나르다를 뜻하는)의 과거분사인 ‘latus’에서 유래한다. ‘학문 중심

지의 이동'(translatio studii), '제국의 이동'(translatio imperii)이라는 중세에 낫익은 표현이 바로 그러하듯이, 이 낱말은 자주 장소의 옮겨짐을 재현하는데 사용된다. 그리젤다는 남성들의 의지에 따라, 아버지 집에서, 월터의 궁정으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그리고 다시 월터의 궁정으로 장소를 이동한다. 그러므로 그리젤다는 권위적 글쓰기의 이동(translatio auctoritatis)에 종속되는 존재이다.

셋째, '번역'은 의복의 메타포와 연관되어 있다. 텍스트는 직조물(textile)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유용한 예로서, 바쓰 여인의 의복은 그녀의 원래의 몸(original text)을 덮어 가장한다. 바쓰 여인은 자신의 몸에 실제로 현란한 옷을 입히는데,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서문」에서 텍스트로써 자신을 재형성하고 있는 바처럼, 자신의 몸에 일종의 혼잡스런 주석(promiscuous glossing)을 가하는 것에 비견된다(Cox 18-38). 바쓰 여인은 실제로(직조업은 그녀의 직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직조물과 텍스트를 짜는 것인데, 이 행위는 남성담론을 희석시킬 수는 있으나, 옷을 입는 한, 즉 상징계에 갇혀 있는 한, 여성은 남성의 여성 읽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젤다는 실 갖는 노동을 하기는 하지만, 스스로 옷을 선택하여 입지는 못한다. 그녀는 아버지 집에서와 월터의 궁정에서 입는 옷이 다르다. 요약하건대, 「학자의 이야기」에서 그리젤다의 옷, 장소, 주석은 등가이며, 모두 남성에게 의해 부과된다.

그런데, 거의 모든 평자들이 그리젤다의 옷을 언급하는 반면, 그녀의 몸에 관한 관심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남성이 부과한 옷(주석)을 벗는 그리젤다 자신만의 '가치와 의미'로서의 몸(Dinshaw 142, 146)을 지적하는 정도가 대부분인데, 그 몸의 가치와 의미를 토론하지는 않는다. 「학자의 이야기」에서 옷이 의미화의 모티프인 것이 분명한 만큼, 옷을 벗는 알몸의 순간도 이에 못지않은 대비적 중요성을 띠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월터가 그녀를 궁정에서 쫓아낼 때, 그녀는 '충실과 알몸과 처녀성'만으로 월터의 궁정에 왔으니, 이제 그의 옷을 되돌려 드린다(865-67)라고 말한다. 단지 아버지 집에서 월터의 궁전으로 가는 동안, 그리고 월터에게서 쫓겨나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는 시간에만 그리젤다는 옷이 없다.

그녀는 말하기를, “알몸으로 아버지 집에서
왔으니, 알몸으로 되돌아갑니다.”

Naked out of my fadres hous,” quoud she,
“I cam, and naked moot I turne agayn.” (871-72)

그녀는 남성들 사이의 교환이 잠시 부재하는 동안에 알몸으로 되돌아간다. 이 벗은 몸은 옷으로 비유되는 아이덴티티가 잠시 부재하는 백지장으로서 또 다른 의미화를 기다리며 떠도는 몸인가? 남성이 부여한 옷을 벗었다 하더라도, 가부장제의 본성과 고통이 어쩔 수 없이 각인된 몸인가? 아니면, 의미화를 외부로부터 부여받지 않은, 오히려 그것을 지우는, 그리하여 이에 저항하는 몸, 즉 그녀만의 본래적인 자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는가? 어느 편이 그리젤다의 ‘알몸’에 가장 타당한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의복은 문자이며, 그것은 가부장적 상징계의 의미화의 폭력이다. 이에 비해, 그리젤다의 맨몸은 그녀가 월터의 옷을 입든 아버지의 옷을 입든 언제나 노동하는 몸이다. 아버지 자니콜라의 집에서도, 월터의 궁정에서도,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도, 월터의 신부를 위해 다시 궁정에 불러졌을 때에도 그녀는 언제나 노동하는 주체이다. 그녀의 노동은 아버지 집이라는 사적 영역과 월터의 궁정이라는 공적 영역, 그리고 생산(production)과 생식(reproduction) 둘 다를 뜻하는데, 이에 의해서만이 그녀는 자신의 주인일 수 있다. 즉, 아버지 집에서의 옷과 궁정에서의 옷이 남성 영역과 권위를 가리키는 기호라면, 이는 사르트르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말할 때 의미된 바처럼, 미리 주어지고 정해지는 존재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젤다는 이 알몸으로써 남자들에게서 부여받아 갈아입어야 하는 여러 의복들 아래에, 오로지 변하지 않는 그녀만의 아이덴티티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월터가 그녀를 선택하였을 때 보았던 “비천한 신분 아래 숨겨진 덕성”(425-26)은 바로 옷의 메타포가 재현하는 신분과 외양 아래 가려져 있는 그녀만의 성품, 즉 ‘알몸’이라 표현될 수 있는 속성에 가깝다. 알몸이야

말로 바로 그리젤다가 그녀 자신이 되는 순간일 것이다. 알몸, 즉 침묵하는 본래적 텍스트로서의 그리젤다는 자신만의 힘과 권위를 감추고 있다.

그리젤다는 어디든 던져진 곳에서 순종하고 노동한다. 둘 다 한결같음이지만, 순종에의 의지가 수동적인 자기성취라면, 노동은 적극적인 자기성취이다. 그녀에게는 ‘순종한다, 고로 존재한다’에 못지않게, ‘노동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어울린다. 또한, 그녀에게서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내면 의식, 이성적 추론, 특히 종교에의 귀의는 사실상 그리젤다 자신의 것이 아니다(Aers 29-33). 외부적 편견과 미신의 배격을 표방하는 ‘의식 속의 존재’로서 불의혹성, 보편성, 탈신비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젤다는 세상 속의 존재(Being-in-the-World)이고 던져진 처소에서 노동하는 존재이다. 침묵하는 몸의 움직임은 유산자를 향한 무산자의 존재표명이고, 남성사회의 옷에 갇혀있지만, ‘떠도는 자궁’ 즉 여성의 히스테리아에 비견된직한 남성을 향한 여성 언어이다. 뒤에서 토론할 것이지만, 그리젤다의 몸의 노동은 여성적 배품의 선물이며, 노동은 자신의 기술을 정교하게 하는 기예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노동의 대상에 각인한다. 물상과 자연이라는 객체에 적용되는 노동은 주체의 자기인식을 돕는다.

그런데, 미셸 푸코 등의 지적대로, 그녀의 몸이 사회질서를 위한 규제 담론이 교차하는 장소라면, 또는 강요라기보다 자기규율에 의해서 ‘아버지의 법률’에 자발적으로 승낙하는 것이라면, 그리하여 아버지와 월터의 옷을 입고 벗음이 강제라기보다는 자발적 승락이라면? 베스털(Bestul)과 크래머(Cramer)의 해석이 대체로 그러한데, 여러 평자들이 가부장제 안에서 자발적 결의에 의해 스스로를 도구화하는, 즉 사회적 젠더 이데올로기에 스스로를 종속시키는 그리젤다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럴 경우, 문자로써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바쓰 여인처럼 남성 언어 질서를 흐트리는 잠재력은 있다고 하더라도, 남성의 상징체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비문자화를 지향하는 그리젤다의 침묵과 알몸의 텍스트는 상징계 질서를 무효화하는 무언가 보다 근원적인 여성 본유의 저항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젤다의 노동하는 몸은 문자에 의해 재현될 수 없는 실재(the Real)에 연관된 본래적

자기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베스털(Thomas H. Bestul)은 얼굴 묘사에 반영된 초서의 관심에 주목하면서, 그리젤다의 얼굴표정의 변화 없음을 지적하거나, 어떠한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진지하고도 변하지 않는 그녀의 얼굴표정(“sad chiere”)은 본래적 자기의 한결같음을 지시하는 안정된 텍스트이다.

월터가 그녀의 인내함과 밝은 얼굴표정,
그리고 전혀 아무런 원한이 없음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가 그렇게 자주 감정을 상하게 하여도,
그녀는 언제나 벽처럼 확고부동하고 한결같았으므로,

And whan this Walter saugh hire pacience,
Hir glade chiere, and no malice at al,
And he so ofte had doon to hire offence,
And she ay sad and constant as a wal, (1044-47)

얼굴표정은 일차적으로 즉각적인 정서적 반응(파토스)과 일치한다고 하겠는데, 시험을 가하는 월터의 위장된 표정과는 달리, 감정표현이 자제된 그녀의 얼굴표정은 그녀의 내적 의지와 일치하며(Bestul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얼굴은 몸의 한결같음의 제유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베스털은 그녀의 한결같은 얼굴표정이 여성으로서의 순종에 내재한 자기억압의 심리기체에 기인하는 것인바, 단지 월터의 관측은 이를 간과한다고 말한다(Bestul 513). 보다 더 강력하게 크래머(Cramer)는 그리젤다의 한결같음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두려움과 자기억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지속하기 위한 여성의 희생 혹은 도구화를 그리젤다가 받아들인 결과가—즉 그저 “thing”이 되기로 함이—바로 월터의 냉혹함에 대한 그녀의 육체적 반응을 무화시킨다(505)고 말한다. 크래머는 또한 타자의 인정을 얻기 위한 월터의 고투는 남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여성을 거부하고 종속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한다(495, 500).

그런데, 이런 해석은 외적으로는 그저 ‘물건’처럼 보이는 그리젤다의 숨겨진 실존적 의지와 결단의 힘, 그리고 그녀의 침묵과 한결같은 윌터의 긍정 수사학적인 위장과의 관련에서 만들어내는 대화론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여성적 배품의 본성과 이에 연관된 그녀의 탁월한 능력을 최소화한 결과이다. 위의 연구들이 취하고 있는 프로이트적인 혹은 문화인류학적인 방법론은 그리젤다를 그저 평범한 보통 여인의 위치에서 파악하게 하는 오류를 낳는다. 그리젤다에게 사회적 억압은 분명히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녀는 그러한 억눌린 감정을 푸는 방식을 이른바 약자로서의 울분 혹은 원한(“malice”, 1045행; 혹은 니체적인 “ressentiment”)에서 찾지 않았다. 억압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밝은 표정(glad chiere: 1045행)은 그녀의 강력한 의지의 속마음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그리젤다가 윌터에게서 쫓겨나면서, 어머니가 된 그녀의 자궁을 가릴 속옷 한 벌만을 달라고 말할 때(883-89행), 여기에는 딘쇼(Dinshaw)가 지적 하듯이, 여성의 몸과 남성적 의복의 의미화에 관한 그리젤다의 이해와 동시에 그것에 관한 저항이 각인되어 있음이 분명하다(146-48). 이처럼 그리젤다의 몸은 사실은 대화론적 저항의 장소이다. 옷이 사회적 규제를 위한 남성의 ‘주석’이라면, 그녀의 몸은 이 ‘주석’을 무화시키는 텍스트, 남성의 주석에서 자유로운 반(反) 주석 혹은 ‘헤테로글로씨아’이다(Engle, McClellan 참조).

그리젤다가 윌터에게 “여기에 가져 왔으나 되가져가지 못하는 처녀성의 보상”(883-86행, “gerdon”, “meede”)으로 속옷 한 벌을 달라고 말할 때, 그리고 그녀가 아버지 집에서 낡은 옛 옷으로 다시 갈아입을 때 무언가 잘 맞지 않음을 느끼는 것은(913-17행), 처녀에서 아내로의 이동에 관하여 남성이 주조한 ‘처녀성 상실’의 사회적 함의가 암시되어 있고, 또한 이에 관한 그녀의 이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의 몸은 일반적으로 규제와 박해의 역사가 각인되고, 제도권의 의미화를 기다리는 푸코적인 몸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학자의 이야기』에서 그런 몸의 의미는 다름 아닌 옷에 의해 재현되는 권력 담론에 의해 모두 중개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뒤에서 살피려 하는바, 그리

젤다의 노동하는 몸의 맨몸은 그런 인식과 더불어, 순종의 모범으로 그녀에게 부과되는 신학적 의미까지도 벗어 던지는 본래적 자기로서 사회 속에서 실존을 이룩하는 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젤다의 강요된 처소이동과 침묵에 상반되게, 육체와 노동의 한결같은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측면을 읽어내려는 시도는 여전히 가능하다. 맨몸의 노동은 외부 조건에 의해 수동적으로 입어야 하는 옷의 텍스트에 저항하는 그녀만의 실존이다. 알몸은 그 위에 아무런 이름을 가지지 않는다. 자니쿨라와 월터의 옷이 알몸 위에 아버지와 남편의 유명론적(“nominal”)이름을 각인한다면, 그녀의 알몸은 그러한 타자의 이름을 지우는 실재론적인(“real”) 몸이다. 그리젤다에게서 ‘얼굴표장’(알몸)과 속마음, 즉 기표와 기의는 등가이고, 이러한 한결같은 그녀의 몸이 이룩하는 그녀의 실존이다.

*

우연성의 옷과 장소에 의해 부과되는 그리젤다의 ‘본질적’ 기능 혹은 ‘상징적’ 주체를 깨뜨리는 것은 기예와 접촉에 의해 활동하는 그녀의 몸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젤다는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이고, 그 곳에서 한결같은 순종과 노동의 활동을 통해 본래적 자기를 향해 스스로를 던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현존재’(Dasein)의 이해는 의식 혹은 정신 속에서 이해되는 존재(being-in-the-conscious)로서가 아니라,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의 일상적 행위자로서이다. 이성의 빛, 사유의 진리는 존재의 열림을 통해서만 구현되며, 따라서 현존재는 사회적 존재로서 대중의 공적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They-self’(Das Man)를 공유한다. 인간은 모두 타자들에 의해 열려지고 유지되는 방식의 이해와 행동에 의해, 사회 속의 자리를 견지하는 존재들이다(Guignon 124). 이로서, 하이데거는 정신과 육체를 분화하여 사유하기 이전의 존재를 상정한다. 인간이란 모두 세상 속에 ‘던져지고’, 세상 속에 ‘위치하는’ ‘피투성’(彼投性)의 존재이고 이것이 실존의 한 버전이다(Guignon 122). 그리젤다로 말하자면, 옷과 처소의 ‘이미 주어짐’을 피할 수 없는데, 이것이 그녀가 피투성으로서의 세계 속의 존재임을 말한다. 비본래적 대중성은 삶의 소유권(eigentlichkeit)을 잃어

버리거나 빼앗긴 상태이기도 한데(Guignon 126), 군중에 순응하여 비본래성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불안(Angst)이다. 존재의 불안은 월터의 궁정에서 그리젤다가 시종일관 느껴오던 감정인데, 이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being-toward-death)임을 깨닫게 하고, 따라서 ‘존재의 불가능의 가능성’(Heidegger 307)과 직면하게 하는 것이다. 존재는 주어진 환경을 넘어, 자신만의 일관적 행위의 펼침으로 어떠한 성취를 의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로써 개체는 자족적이며 영속적인 존재로서의 ‘본래적인’(authentic) 자기가 된다. 돌발적이고 비본래적인 공적 세계(그리젤다의 옷 바꿔 입기와 처소의 옮김) 안에서의 개인의 선택(순종에의 의지와 노동에의 일관된 참여)은 개체의 결단과 책임을 동반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본래적 자기’는 공동체 삶의 우연성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They-self’는 ‘본래적 자기’ 혹은 ‘순수자기’의 하나의 실존적 버전이고, 이 ‘본래적 자기’는 개체의 본질적 구조를 이룬다(Guignon 120). 말하자면, ‘그들’과 ‘본래적 자기’는 떼어낼 수 없다. 관계망과 잠재력(ability-to-be) 사이에는 가를 수 없는 연관이 있으며, 자기와 세계는 상호 작용하는 관계에 있다. 그리젤다에게 개별성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망 속에서의 노동이고, 이것이 그녀의 진정한 자아이다. ‘본래적 자기’는 잠재성이며, 그래서 예기적인 기투(企投)에 의해 실현된다(304-09). 기투는 주어진 상황에서 빠져 나오는 가변성(‘어디의 바깥에 위치한다’, “ex-sistere”)의 추구이며, 구체적 현실에서 언제나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미래 가능성을 위한 자기투사의 행위인데, 이는 또한 전체로서의 자신의 삶의 실현과 연관이 있다(Guignon 122-23). 존재의 본성은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운동 속에서 어떤 멈춤을 향하여 일관성 있게 기투하는 작업이다.

하이데거의 기투, ‘본래적 자기’에는 그리젤다에게 맞는 점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 그리젤다의 경우, 있다면, 순종과 노동의 두 요소가 응집력을 가진 자신의 본래적 삶의 소유권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요소는 존재의 한결 같음(die Ständigkeit des Selbst)을 이루어 삶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게 하는데(369), 이는 단순함, 확고부동, 그리고 반복성이라는 하이데거의 정의를 만족시킨다. 그러나, 그녀는 무조건적 충실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월터의 결정에 전혀

회의하지 않기 때문에(Stepsis 138), 이는 행동의 일관성이 미래를 계속탈트적 총체성의 형태로 예견(285-86)하고 결단하는 성격의 ‘기투’와는 거리가 있다. 한편 자끄 라캉은 여성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몸소 경험하는 주이쌍(jouissance)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것은 결코 호혜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존재를 향한 결핍감에서 ‘something more’를 추구함으로부터 비롯되므로, “ex-istence”라고 해석한다(Lacan 147). 이는 일견 그리젤다에게 맞지 않아 보이는데, 그녀는 자신의 생계 문제에 있어서 전혀 결핍을 모르고 필요만을 충족시키며, 만족을 지향하는 경계를 견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터에 대한 순종과 타인을 위한 봉사에 있어서는 일상에서 통용되는 경계를 넘은 ‘something more’의 잉여 경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라캉의 “어디의 바깥에 위치한다”(ex-sistere)라는 해석이 그리젤다에게 전혀 의미가 닿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캉이 잉여의 경계로 해설하는 명상가의 신비체험이 그리젤다에게 어울리는 것은 그녀의 순종과 인내 그리고 배품의 과잉이 가부장제 억압과는 차원을 달리 하는 종교적 희생 수준의 배품으로 승화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무엇보다도 하이데거의 ‘기투’는 끝을 향한 존재,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불안’과 연관이 있는데, 이는 그리젤다의 현존재와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인다. ‘They-self’의 우연성에 대조적으로 불안은 선택과 책임을 갖게 하므로 삶의 주인자격을 추구한다. 불안은 “낯설음”(“고향에 있지 않음”, *Unheimlichkeit*)에 던져진 무엇으로서의 발가벗은 현존재를 실감하게 하는데(233, 321, 394), 그리젤다의 알몸의 순간이 이른바 집이 없는 노숙자라는 존재 인식을 돕는 순간일 수 있다. 집을 지닌 남성들인 아버지와 남편의 처소 사이를 오가는 동안, 집이 없는 그녀의 알몸이야말로 그녀의 본래적 자기, 그녀의 본연의 존재 양태와 맞대면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옷이 현존재의 던져짐(피투성)이라는 실존의 한 버전이라면, 알몸은 옷이 없음, ‘집이 없음’의 현존재의 절실한 실존적 불안이며, 이로서 그녀는 본래적 자기를 향하여 순종과 노동의 일관성있는 결단에 종사한다.

*

그런 한편, 데이비드 월리스는 사르트르를 인용하면서, 집안일에 몰두하는 그리젤다에게 던지는 월터의 시선이 그녀의 자기인식을 부추긴다고 토론한다 (Wallace 203). 다음 구절에서, 그리젤다는 타인의 응시에 의해—즉 귀족층과의 부딪침으로 인해—자기인식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후작은 사냥길에 나섰을 때
이 가난한 아가씨 그리젤다에게
여러 번 시선을 두게 되었다.
그녀를 훑쳐보게 될 때, 그는 어리석게 난봉기 있는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하는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그녀의 자태를
자주 관측하곤 하였다.

Upon Grisilde, this povre creature,
Ful ofte sithe this markys sette his ye
As he on huntyng rood paraventure;
And whan it fil that he myghte hire espye,
He noght with wantown *lookyng* of folye
His *eyen* caste on hire, but in sad wyse
Upon hir chiere he wolde hym ofte avyse, (232-38; 이탤릭 첨가됨)

자신이 ‘보여지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바로 객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젤다가 ‘보여짐’을 의식한다는 것은 보는 주체를 의식함이다. 아버지 집에서 그녀는 대중적 관심으로부터 외따로 떨어져 노동하는데, 월터가 자기 집으로 신부를 간택하러 올 때 그를 구경하러 몰려든 이웃들과는 달리, 그녀는 자기가 신부로 채택되었음을 전혀 의식 못한 채 자연 대상물 속에서 노동에 몰두하다 늦게야 집에 도착한다(274-80행). 이질적 존재로서의 월터의 응시는 이와 같은 그리젤다의 자기존재 인식을 처음으로 돕는다고 말할 수 있다.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에서 인간은 오로지 타자의 인식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말한다. 보여짐을 인식한다는 것은 세상 속의 존재로서의 나 자신의 인식이다. ‘내가 본다’는 것은 ‘내가 보여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내가 보는 자라면, 어디까지나 나는 타자에게 ‘보여진’ 보는 자이다. 나를 보는 타자에 의해 나의 초월성은 초월되고, 나의 자유는 타자의 자유에 의해 위협 당한다(263-64, 270-71). 나를 보는 타자는 그러나 그 정체성이 파악되지 않은, 즉 보이지 않는 타자이다. 이는 타자가 나에게 의해 대상으로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식으로부터 끊임없이 세상의 움직임 속으로 탈주하기 때문이다(255, 258). 그리하여 나는 세상 속의 하나의 가능성 혹은 객체로 편입되고 고정되어, 나의 원래의 순수성이 제거된다. “타자의 존재가 나의 원초적 타락”의 요인이다(263). 여기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원죄로서의 타자의 존재와 타자의 시선에 관한 사르트르의 두려움이 투영되어 있다. 나를 비본래적 자기, 혹은 물상으로 만드는 타자의 시선(*le regard*)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는 헤겔적인 주인과 노예의 욕망의 투쟁, 즉 의식 혹은 시선의 투쟁이 전개되어야 하겠지만, 사르트르는 이러한 주인적인 욕망을 제거하여, 헤겔의 인식으로서의 주체보다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해지는 자아의 분별성을 강조한다(Wollen 96, 98). 내가 보여진다는 것은 나를 보는 타자를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나는 나의 객체성을 인식한다. 나는 오로지 보여지는 나 자신을 통하여 나를 인식한다.

그런데, ‘시선’이라는 메타포는 시선의 희생물로서의 그리젤다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시선의 주인으로서의 월터가 갖는 인식의 편향성을 설명하는 데에 더 유용한 도구이다. 사냥을 오가던 중, 일에 열중하는 그리젤다를 훑쳐보는 것이나, 자신의 표정은 숨긴 채 영주 부인이 된 그녀의 표정을 지켜보는 행위는 가히 ‘열쇠 구멍’을 통하여 타인을 지켜보는 관음증적 관측이다. 타자를 관측하고 해석하는 일은 그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방적 행위이며, 보여지는 이는 객체가 되어 보는 이의 희생물 혹은 물상의 위치로 전락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의 응시에 답하지 않으므로, 즉 감히 어느 누구도 그와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므로(Wallace 193-94, 203), 월터는 자신의 객체화에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이

다. 그는 의식 자체이며 진정한 자기가 아니다. 월터에게는 그를 응시하여 자유를 제약하거나, 사르트르가 말하는바, 응시를 당함을 인식하는 자의 편에서 느끼게 되는 ‘부끄러움’(261-62)을 느끼게 해 주는 인물, 그리하여 “내가 더 이상 이 상황의 주인이 아니다”(265)라는 인식을 일깨워 주는 인물이 아무도 없다. 그는 ‘보여짐’을 결여하여 자기인식의 소외를 겪는다.

그리젤다의 편에 있어서도 그녀가 ‘보여지는 존재’라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이데거와 헤겔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의 타자의 존재를 상정하는 사르트르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타자와의 접촉은 어디까지나 눈에 의해서이다.³⁾ 더욱이 사르트르가 일방적 응시의 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피응시자의 희생을 말하고 있다면, 월터의 응시가 그리젤다의 자기인식을 일깨운다는 것은 한계를 갖는다. 응시는 응시자의 자유와 초월성에 의해 피응시자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응시자로서의 그리젤다를 응시하는 월터의 시선은 사실상 그가 입힌 옷의 상징적 가치와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인용한 구절에서 월터의 응시는 사실상 여성을 희생물로 삼는 남성의 관음증적 증상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에 이어지는 것은 그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바 보여진 대상에 관한 그만의 추론이다.

그러므로, 월터와 그리젤다의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남성의 눈, 남근, 이성의 등식에 대비되는 여성의 몸, 접촉, 감각의 등식의 대조를 성립시킨다. 정작 그리젤다에게 있어 자기인식은 응시보다는 몸의 노동, 사람과 자연과의 접촉과 조정에 의해서이다.⁴⁾ 맨몸에 의한 노동이 주는 자기인식은 타자에 의해 부과된 옷

3) 사르트르에 있어 주체는 보여지는 존재이므로 언제나 상처받을 수 있는 몸을 갖고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259). 사르트르도 응시에 연이어 몸에 관하여 상술한 바가 있다(303-59). 그에게서 몸은 인간의 노고의 배경이자 중재자로 살고 경험하지만, 몸 자체가 존재에 있어 독자적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즉, 최종적으로 사르트르는 몸을 떠난 데카르트적 사유가 독자적인 존재적 위치를 가지지 못한다고 단언하지는 않았다.

4) 눈과 몸의 차이는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는 또 데카르트가 모든 것을 의심하지만, 의심하는 자신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여 손으로 예수의 육체를 접촉해 보고서야 의심을 지우는 제자 도마의 차이가

을 무효화하는 데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모색한다고 할 수 있다. 월터가 불확실한 관측과 사색의 수동적 ‘코기토’(cogito)로서의 눈의 존재라면, 그리젤다는 노동에 의한 타자와의 접촉에 의해 자기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몸의 존재이다. 요컨대, 그녀가 입게 되고 거주하게 되는 옷과 처소는 남성의 응시와 사유의 등가물이며, 이를 무효로 돌리는 것은 바로 그녀의 맨몸의 노동이다. 욕망의 응시보다는 노동의 몸, 눈보다는 손, 그리고 관찰보다는 접촉이 그리젤다의 자기인식을 일깨운다.

2. 노동하는 몸⁵⁾

월터는 귀족으로서의 권력과 경제, 의지와 자유의 과잉을 누리는 반면, 그리젤다는 결혼 후에도 순종과 노동의 의무에 갇혀 있다. 그리젤다의 삶은 스스로도 토로하듯이(820-26행), 전형적 궁정여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녀의 몸은 필요만을 충족시키는 궁핍의 처소이며, 그 몸이 만들어낸 잉여가치(아이들을 포함한)는 월터가 갖는다. 그럼에도 그리젤다는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반면 월터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노동 착취라는 경제의 측면보다는 자기인식 수단으로서의 노동의 실존적 가치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학자의 이야기」는 자기인식의 문제를 ‘노동’의 측면에서 진지하게 고찰하도록 유도한다.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월터와 그리젤다, 즉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다. 도마의 믿음은 예수의 몸(옷자락)을 만진 병든 여인, 그리하여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예수가 말한 그녀의 믿음(마가 5.25-34)과 다르지 않다. 자아의 의식 속의 확신과 타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확신의 차이이다. 또한 “a sleight of hand”는 불어에서 유래한 “legerdemain”이라는 낱말의 정확한 번역인데, 요술, 손재주로 번역되는 이 낱말은 자주 눈속임이라고도 옮겨진다. 손(몸)이 눈을 이기는 것이다. 그리젤다의 노동은 객체를 조정(manipulation)하는 수작업(manufacture)인데, 모두 손(몸)과 연관되어 있다.

5) 월터와 그리젤다의 관계를 헤겔의 주인과 노예에 의해 설명하려는 시도는 본인의 2003년 1학기 대학원 초서 수업에서 심봉주 군에 의해 제공된 바 있음을 밝혀둔다.

자기인식과 자기소외의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이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의식의 대결로서의 자기인식 획득의 문제를 다루는데, 대체로 ‘주인’의 일방적 자기인식의 욕망으로 귀결되며, 그리하여 타자에 의해 인정받고자 하는 월터의 욕망이 결국 자기동일성의 쟁취로 복귀한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런데, 노동을 통하여 노예가 주인을 넘어 자기인식에 더 가까이 접근한다는 해석은 그리젤다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다. 헤겔에 의하면, ‘노예’의 자기인식은 노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노예는 주인을 위한 ‘노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 자기를 객체화한다. 자연계를 조정하고 조형하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독자성의 영속적 표현을 발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산물 속에서 자신이 객체화됨을 발견할 수 있다(Hegel 118). 주인의 욕망이 일방적인 자기동일성을 의도한다면, 노예의 노동은 자연과 타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자기인식을 획득케 한다. 이런 점에서 ‘욕망’과 ‘노동’은 대조적인 개념이다.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초서가 그리는 그리젤다는 유달리 노동하는 여인으로 부각되어 있다. 그리젤다는 아버지 집에서의 생존을 위한 가사노동, 귀족부인으로서의 남편을 보필하는 정치적 노동, 그리고 자손 생산의 노동, 그리고 월터의 두 번째 신부 후견의 노동 등의 일련의 활동을 통하여, 대상 속에 자기표현을 각인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수단을 갖는다. 여기서는 긍정에서 정치적 노동과 분만의 노동을 살피지 않을 터이지만, 그녀의 정치적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 노동이고, 월터의 가계계승을 위한 자손생산(reproduction)은 분만의 산고(labor)를 동반하는 노동임에 틀림없다. 그리젤다의 노동 과정을 몇 가지 짚어 보는 작업은 그녀가 노동의 증진을 통하여 자기인식을 향상시키는 추이를 관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선, 아버지 집에서 그리젤다는 무산계층의 노동자와 다름없는데, 이 노동은 주로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와인통보다 우물에서 그녀는 더 자주
물을 마셨고, 덕행을 좋아했으므로,

노동을 잘 알았고 나태한 편안을 몰랐다.

Wel offer of the welle than of the tonne
 She drank, and for she wolde vertu plese,
 She knew wel *labour* but noon *ydel* ese. (215-7; 이탤릭체 첨가됨)

그녀는 실을 찾기 위해 들판에서 양을 몇 마리 키웠다.
 잠들 때까지 그녀는 게으르지 않았다.

집으로 올 때, 그녀는 양배추나
 다른 풀 이파리를 종종 가져오곤 했는데,
 그것을 자르고 끓여서 먹을 것으로 취하였고,
 침대는 매우 딱딱하게 만들어, 전혀 폭신하지 않았다.

A few sheep, spynnyng, on feeld she kepte;
 She wolde noight been *ydel* til she slepte.
 And whan she homward cam, she wolde brynge
 Wortes or othere herbes tymes ofte,
 The whiche she shredde and seeth for hir lyvyng,
 And made hir bed ful hard and nothyng soft; (223-8; 이탤릭체 첨가됨).

위의 인용에서 언급되는 마실 것, 먹을 것, 그리고 몸을 보호할 처소(혹은 그녀가 월터에게 단 한번 요구한 숙곳)는 중세에 있어 생존을 위하여 누구나 기본적으로 향유할 권리가 있는 전형적인 세 항목, 즉 먹고 마실 것과 입을 것에 정확히 일치한다. 그리고, 무산자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가계의 딸로서 그리젤다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도 힘겨워, 세상 사와는 소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나’로서의 존재를 확립하려는 인간욕망을 결여한 최소한의 생존의 욕망이며, 이 필요의 충족은 타자의 욕망에 의해 ‘중개’(mediated)되지 않으므로, 자기인식과는 무관한 이른바 동물적 욕망에 가까운 것이다(Kojève 6).

월터의 궁정에서 쫓겨나 무산계층 노동자로 다시 전락한 그녀는 월터의 요

청에 따라 어린 신부를 위한 노동에 임한다. 새 신부를 위해 그녀가 기울이는 신방 꾸미기의 수고에서 헤겔의 지적과 연관하여 중요한 것은 노동하지 않는 월터에게 암시되는 자기인식의 소외와, 그리젤다의 노동을 통한 자기인식의 증대이다. 노동에는 물상에 적용되는 기예의 증진과 노동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이웃과의 접촉이 포함되므로, 자이는 언제나 자신을 객체화할 수 있다. 다음의 인용에서 언급되는바, 월터의 취향을 의식하는 그녀의 노동은 자신을 객체화하는 작업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나는 진정 내 취향에 맞게 방들을
정돈되어 치장하기에 충분히 적합한 여인을
알지 못하오, 그러니 나는 이런 모든 종류의 관리가
당신의 것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오.
그대는 또한 예전부터 내가 무얼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소
비록 그대의 의복이 남루하고 불상 사나우나,
최소한 당신은 직분을 다할 것이오.

“I have no wommen suffisaunt, certayn,
The chambres for t'arraye in ordinaunce
After my lust, and therefore wolde I fayn
That thyn were al swich manere governaunce.
Thou knowest eek of old al my plesaunce;
Thogh thyn array be badde and yvel biseye,
Do thou thy devoir at the leeste weye.” (960-66)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식탁을 차리고,
침대를 보살피며, 집안을 돌보기 시작했다.
여시종들에게 서둘러 말끔히 쓸고 닦고,
흔들어 먼지를 떨라고 부탁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수고하였다.

And with that word she gan the hous to dighte,
 And tables for to sette, and beddes make;
 And peyned hire to doon al that she myghte,
 Preyng the chambereres, for Goddes sake,
 To hasten hem, and faste swepe and shake; (974-78)

옛날처럼 지금도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즉 외관상으로는 변화가 없으며, 그리젤다는 환경을 “정돈”(960)하고 “관리”(962)하면서 타인과 접촉하고 자신의 기예를 증진시켜 왔으므로, 자기인식에 있어 향상을 이룩하였다. 여기서 특히 침대 일의 언급(975행)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위에서 인용한 아버지의 처소에서 언급된바 있는데(228행), 말할 필요도 없이, 시간적 흐름 속에서 그만큼 더 정교해진 노동의 기술이 첨가되어진 것이다. 두 가지 침대 일은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열고 펼치는 행위자로서의 하이데거적 실존을 목격하게 하거니와, 헤겔에 의하면 노동은 외적 지배와 규범을 자기의식이 정복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자기실현은 향상되는 기교로써 소재의 성질에 대응하고, 축적된 경험을 이용하여 요구되는 필요를 만족시키며, 체계를 세우고 조정하는 활동에서 성취된다 (Hegel 118).

다음 구절에는 남루한 옷을 입고도 부당한 요청에 대해서 밝은 얼굴표정을 지으며, 한결같이 순종하고 노동하는 그리젤다의 모습이 또 한번 잘 요약되어 있다. 그녀는 어떤 옷을 입어도—남성에 의해 어떻게 ‘번역’되더라도—그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근면하다. 이것이 그녀의 현존재에 내재한 본래적 요소이다.

이제 나는 그리젤다에게 되돌아가서
 그녀의 한결같음과 근면함을 이야기하려 한다.
 그리젤다는 결혼 잔치에 연관된
 타당한 모든 일에 있어 매우 부지런하였다.
 비록 옷이 조야하고 또한 다소 누더기 같았지만,
 그녀는 옷에 관하여 조금도 당혹해 하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운 얼굴로 다른 이들과 함께
 후작부인을 맞으려 대문으로 나갔으며,
 연후에 계속 자신의 일을 부지런히 하였다.

But to Grisilde agayn wol I me dresse,
 And telle hir constance and hir bisynesse.
 Ful *bisy* was Grisilde in every thyng
 That to the feeste was apertinent.
 Right noght was she abayst of hire clothyng,
 Thogh it were rude and somdeel eek torent;
 But with glad cheere to the yate is went
 With oother folk to greete the markysesse,
 And after that dooth forth hire *bisynesse*. (1007-15; 이탤릭체 첨가됨)

여기서 주목을 끄는 낱말은 “bisy”, “bisynesse”인데, 이는 앞의 인용에서의 “ydel”(217, 224행)과 상반되는 낱말이다. 또한 그리젤다는 자기에게 속한 집안 노동을 먼저 하고, 여가가 생기면(“at leyser”, at leisure: 286행) 바깥 구경을 하겠노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bisynesse”는 바로 이 ‘여가’ 혹은 ‘한가함’이라는 낱말과도 연관이 있다. “bisynesse”는 ‘otium’(leisure)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neg + otium’(negotiation)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는 그리젤다의 근면함이 객체와의 접촉을 전제하고 있음을 지시한다. 노동은 객체와 자연계와의 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자신의 작업과 기술을 증진시키는 자기와의 대화이기도 하다. 그리젤다는 객체와 함께, 객체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데, 이는 객체와의 접촉을 통하여 자신을 객관화하는 작업인 것이다.

베스텔(Bestul)과 크레머(Cramer 494)는 그리젤다의 한결같은 이면에 존재하는 두려움과 억눌림—가부장제에서 기능하기 위한—을 지적하고 있거니와, 헤겔을 다시 원용하자면, 우세한 타자에의 인식을 전제로 하는 이러한 공포는 ‘노예’의 봉사 체험 동안 그의 전 생활을 통해 밀려온다. 그 결과 그는 필연적으로 노동 속에 객관적 표현을 부여할 수 있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충분히

경험한다(Hegel 117-118). 헤겔은 ‘노예’의 봉사와 순종에 내재하는 두려움의 요소야말로 ‘노예’가 ‘주인’을 압도하여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체로 발전하게 하는 자기인식의 요체라고 말하는데(119), 이것은 물론 그리젤다에게 더 없이 잘 어울리는 진술이다. 주인으로서의 월터는 노동의 결과만을 향유할 뿐이므로, 그 객관적 관계에 참여하지 못하여 자기인식에서부터도 거리가 생기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리젤다의 본래적 요소가 너무나 깊이 각인되는 이러한 노동의 결과물은 사실상 월터에게 진정한 소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젤다의 자기인식의 도구는 노동과 더불어, 자기처지의 불안정성에 관한 두려움 섞인 불안이다. 헤겔은 자기인식에 부정적인 요소로서, 스토이시즘, 회의주의, 불변자애의 의존 등을 열거하는데(119-38), 자기인식은 퇴행적 자기부정이나 초월적 존재에 의지하는 형태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젤다가 단지 유명론적 신에만 순종하거나(Stepsis; Steinmetz), 세속적 권위의 전횡에 인내하는 스토이시즘의 인물(Aers 38-39), 혹은 아내의 순종의 모델로서의 알레고리적 인물이기만 하였다면, 그녀는 헤겔적 자기실현에 가까운 존재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젤다는 자기만의 이성적 조절이 가능한 내면적 정신영역에 의존하여 무한히 자족하는 금욕주의의 존재도 아니고, 신 앞에서 자기적 요소를 지우는 자기부정을 통하여 타인과의 경계를 없애는 초월적 사랑의 존재도 아니다. 그녀에게서 이성적 추론이나 통제, 그리고 내세에서의 보상이라는 종교적 의존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노동이야말로 그녀의 실존적 알몸의 요소이고, 초월자, 자기부정, 극기주의에 의존하는 것은 다름 아닌 중세 남성담론이 제공하는 ‘옷’, 즉 신화적이거나 가부장적인 주석에 덧입혀지는 것이다.

*

위에서 토론한 바처럼,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자기인식에 있어 월터와 그리젤다의 뒤바뀌는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리젤다는 진정으로 의식의 투쟁을 통하여 주인적인 자기인식의 소유를 추구하는가? 그

너는 주인의 역할을 떠맡는 것은 즐겨 수용하는가? 헤겔의 주노 관계에 의한 자기인식은 결국 동일성(self-same) 혹은 자아에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자기 보존과 소유의 경제이므로, 월터의 경우에 이것이 더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 월터는 오로지 자기인식을 위하여 그리젤다를 점증적으로 타자임을 재확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젤다는 결코 타자로서 반응하지 않고, ‘주인’과의 관계역전을 피하지 않으며, 이를 의도하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월터는 헤겔이 말하는 주체처럼 어디까지나 노예로서의 객체를 원하는 것이지, 자아의 등가물로서의 진정한 타자의 가치, 혹은 자아의 소모를 통하여 타자의 가치를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그 영향관계에 있는 사르트르나 라캉은 자아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자아가 자기실현과 인식을 갖는다는 헤겔의 견해가 다소 낙관적이라고 생각할 것임이 틀림없다(Sartre 233-52). 왜냐하면, 사르트르의 비판처럼, ‘주인’은 ‘노예’의 속마음을 진정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헤겔의 주객관계는 어디까지나 의식의 대결이고, 타자의 의식을 헤아리는 것은 자아의 의식 속에서 일 뿐이다.

이에 대조적으로, 그리젤다는 자신 그리고 아이들과 분리되고 이탈되지만, 즉 끊임없이 옮겨지는(“translatio”) 존재이지만, 월터와 이웃 즉 타인을 수용하는 자로서, 자신을 제공하는 존재이다. 자신을 바치는 존재라는 뜻의 “oblate”라는 낱말은 어디로 가져다짐, 어디에 제공됨을 의미하는 라틴 ‘oblatu’(ob + latus)에서 유래하는데, 이 단어는 바침(offer)을 뜻하는 ‘offerre’(ob + ferre)의 과거분사형이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이미 토론하였던 ‘translatio’(trans + ferre의 과거분사형)와 어근이 일치한다. 더불어 흥미로운 것은, 질 만(Jill Mann)이 지적하듯, 월터가 아내 시험에 있어 물릴 줄 모르는(insatiable) 존재라면, 그리젤다는 빈곤과 고난의 처지에서도 한없이 만족(satisfaction)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어원상의 연관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이다(31-43).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젤다는 ‘translatu’, ‘oblatu’, 즉 ‘ferre’의 과거분사형으로서의 수동태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satisfactio’에서 보이는 바, “satis + facere”, 즉 충분히 만든다는 뜻의 능동태적 존재이기도 하다. 주지하듯이, ‘satisfactio’는 값음, 보상을 위해 충분히

베푸다는 의미도 지니는 것이다. 그리젤다는 타자에 의해 옮겨지고, 자기와 자기의 생산물을 제공해야 하므로, 결국 타자들을 위해 과잉으로 베푸는 존재인바, 오히려 그럼으로써 빛이 없는 삶에 한없이 만족할 수 있다. 빛진 자, 약자로서 내면적인 원한(ressentiment)을 키워가는 것에 대조적으로, 그리젤다는 니체의 말대로 자신에게 가해진 피해를 적극적으로 망각하고 되갚음의 기대 없이 자신을 선물할 수 있는 강자이다. 이것이 겉으로는 ‘주인’이고 강자이면서도 늘 초조한 월터에 대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고 순종해야하는 약자이며 ‘노예’인 그리젤다가 오히려 의연할 수 있는 이유이다.⁶⁾

주제어: 번역, 주식, 옷, 몸, 노동, 주인과 노예

Works Cited

- Aers, David. *Faith, Ethics and Church: Writing in England, 1360-1409*. Woodbridge, Suffolk: D.S. Brewer, 2000.
- Benson, Larry D., gen. ed. *The Riverside Chaucer*.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1987.
- Bestul, Thomas H. "True and False *Cheere* in Chaucer's *Clerk's Tale*." *JEGP* 82 (1983): 500-514.
- Burke, E. M. "Grace." *New Catholic Encyclopedia*. Ed. The Editorial Staff at the Catholic U of America. New York, 1967. 658-72.

6) 헤겔적 ‘주인’으로서의 월터의 자기인식 시도의 한계, 그리고 이에 대조되는 그리젤다의 ‘선물’의 여성경제를 토론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문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개요를 언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 Cox, Catherine S. *Gender and Language in Chaucer*. Gainesville: UP of Florida, 1997.
- Cramer, Patricia. "Lordship, Bondage, and the Erotic: The Psychological Bases of Chaucer's *Clerk's Tale*." *JEGP* 89 (1990): 491-511.
- Dinshaw, Carolyn. *Chaucer's Sexual Politics*. Madison: U of Wisconsin P, 1989.
- Engle, Lars. "Chaucer, Bakhtin, and Griselda." *Exemplaria* 1 (1989): 429-459.
- Guignon, Charles. "Becoming a Self: The Role of Authenticity in *Being and Time*." *The Existentialists: Critical Essays on Kierkegaard, Nietzsche, Heidegger, and Sartre*. Ed. Charles Guignon.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2004. 119-32.
- Hansen, Elaine Tuttle. *Chaucer and the Fictions of Gender*.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92.
- Hegel, G.W.F. *Phenomenology of Spirit*. Trans. A.V. Miller. Oxford: Oxford UP, 1977.
- Heidegger, Martin. *Being and Time*. Trans. J. Macquarrie and E. Robinson. New York: Harper & Row, 1962.
- Kojève, Alexandre. *Introduction to the Reading of Hegel: Lectures on the Phenomenology of Spirit*. Ed. Allan Bloom. Trans. James H. Nichols, Jr. Ithaca: Cornell UP, 1980.
- Lacan, Jacques. *Feminine Sexuality*. Trans. Jacqueline Rose. New York: Norton, 1982.
- Mann, Jill. "Satisfaction and Payment in Middle English Literature." *SAC* 5 (1983): 17-48.
- McClellan, William. "Bakhtin's Theory of Dialogic Discourse, Medieval Rhetorical Theory, and the Multi-Voiced Structure of the *Clerk's Tale*." *Exemplaria* 1 (1989): 461-88.

- Sartre, Jean-Paul. *Being and Nothingness: An Essay on Phenomenological Ontology*. Trans. Hazel E. Barnes.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56.
- Sledd, James. "The Clerk's Tale: the Monster and the Critics." *Chaucer Criticism. Vol. 1. The Canterbury Tales*. Ed. Richard J. Schoeck and Jerome Taylor. Notre Dame: U of Notre Dame P, 1960. 160-74.
- Steinmetz, David C. "Late Medieval Nominalism and the *Clerk's Tale*." *ChR* 12 (1977): 38-54.
- Stepsis, Robert. "*Potentia Absoluta* and the *Clerk's Tale*." *ChR* 10 (1975): 129-46.
- Wallace, David. "'Whan She Translated Was': A Chaucerian Critique of the Petrarchan Academy." *Literary Practice and Social Change in Britain 1380-1530*. Ed. Lee Patterson.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90. 156-215.
- Wollen, Peter. "On Gaze Theory." *New Left Review* 44 (2007): 91-106.

Griselda's Body and Labor in Chaucer's *Clerk's Tale*

Abstract

Minwoo Yoon

Griselda is “translated” in three ways in *the Clerk's Tale*. Chaucer *translates* the versions by Boccaccio and Petrarch into a tale capable of inviting various interpretations. Griselda is *translated* (transferred) from her father's house to Walter's court and then back to her father's place and then again to the palace. And she is *translated* into different persons, depending on different clothes she is supposed to wear in different places. In all the three cases, Griselda is subject to the males who weave her identity. Then, in antithesis to her changing clothes, what is constant is her naked body. Her body (in a sense, her “sad chiere”) nullifies all the variants of clothes and places that circumscribe it. Her naked body is the Real, resisting the symbolization of male glossing.

Further, regardless of the clothes, places, and texts that environ Griselda, what also stands constant is her labor. She diligently works either in her father's house or Walter's palace. She performs domestic, wifely, and public works for production and reproduction. This inalienable entity of her unwavering labor makes her the master of her selfhood. Whereas Walter the marquis fails to achieve self-recognition, Griselda is not estranged from a firm sense of existence in the course of improving her own ordering and shaping skill, over time, during her contact with human beings, nature and material objects. This Hegelian dialectic of the master-slave nexus accounts for Walter's insatiable desire for testing her wife in order to get the badly needed interaction of the conscious with the Other. Thus, feeble and momentary as it may be, there happens the *translation* of power from Walter to Griselda toward the end of the tale.

Key Words

translation, glossing, clothes, body, labor, master and slave